

신년사



존경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해년(丁亥年)을 보내고 풍요와 희망 그리고 기회를 상징하는 무자년(戊子年)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해 새롭게 출범한 우리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함께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12월 태안지역에서 발생한 유조선 기름 유출사고로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으신 어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원상복구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공단은 지금까지 선박검사 등 정부대행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과 선박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선박안전에 관한 기술진흥에 이바지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올해는 우리공단이 “해양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는 원년의 해로 삼아 선박검사를 비롯한 각 종 기술서비스의 품질향상을 통하여 국내 외적으로 해양안전기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객의 현장애로기술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개발 수행과 함께 다양한 대고객활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동시에 지속적인 경영합리화와 혁신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경영투명성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해양수산가족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모든 해양수산분야에 있어서 해양사고가 없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한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모든 해양수산가족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8. 1. 1.

이사장 김 성 규